

조선의 '세계인' 역관과 그들의 세계화

‘역관’ 통해 독특한 방식의 역사 재현

꼼꼼한 고증, 생생한 묘사... ‘중세 동아시아 국제정치경제학’ 방불

글_ 최연식 연세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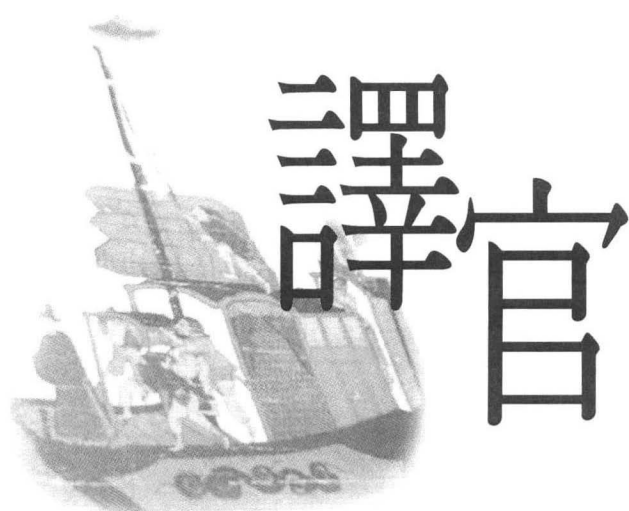
역사의 숨겨진 진실에 새 생명을 불어넣기로 유명한 역사학자 이덕일이 최근에 또 다시 우리 역사의 숨은 주역을 찾아냈다. 이번에 그가 독자들에게 던진 화두는 역관(譯官)이다. 저자는 그들을 계급적으로는 사대부 사회의 주변인이었지만, 계급적 한계를 뛰어넘어 동아시아의 정치와 경제를 주도한 진정한 세계인으로 복원시켰다. 이 점에서 《조선 최대 갑부 역관》은 중세 동아시아의 살아있는 국제정치경제학을 재현했다.

사실 조선은 지정학적으로나 정치경제적으로 주변 국가의 동향에 민감할 수 밖에 없는 나라였고, 다른 어느 나라보다도 역관의 역할이 중요했던 나라였다. 그러나 조선의 역관은 언제나 역사의 중심에서 빗겨나 있었고, 사대부들이 주연을 맡은 무대의 배후에서 실무를 담당하는 조연도 아닌 스태프로만 인식되었다. 당시 사대부들의 계급적 허위의식과 해외 정보수집의 중요성에 대한 몰이해 때문이었다. 이제 《역관》은 해외 정보수집의 중요성에 둔감했던 사대부들의 계급적 허위의식을 신랄하게 꼬집으면서, 역관의 역사와 다양한 역할들을 입체적으로 재구성하여 역관들에게 정당한 역사적 지위를 되찾아 주고자 한다.

《역관》이 역관들의 역사적 가치를 재현하는 방식은 독특하다. 《역관》은 역관들을 단순한 기능적 통역사로 폄하하지 않고, 그들을 직업외교관으로, 국제무역상으로, 무기수입상이자 고급 첩보원으로, 그리고 개화사상과 독립운동의 선구자로 승화시켰다. 저자는 역관들을 시쳇말로 ‘투잡스족’으로 표현했지만, 사실 그들은 ‘투잡스족’ 이상의 역사적 역할을 수행했다. 그들은 때로는 냉혹한 국제정치경제의 최전선에서, 그리고 때로는 비정한 국내 정치의 소용돌이 속에서 국가의 명운을 걸고 외롭게 사투했던 선각자들이었다.

저자가 독자들에게 들려주는 역관들의 이야기는 박지원의 《허생전》에서 남루한 선비 허생에게 거금 일만 냥을 선뜻 빌려준 거부 변씨의 이야기로 시작된다. 《허생전》을 모르는 독자들이야 없겠지만, 저자는 변씨가 바로 역관 출신으로 도성의 최대 갑부가 된 변승업(下承業)의 조부라는 사실에 주목한다. 이 지점에서 저자는 변씨는 직관으로 조선 역사의 주변계급에 불과했던 역관과 상인을 역상(譯商)으로 절묘하게 결합시켰다. 누구에게나 익숙한 평범한 이야기 한 토막에서 역사의 숨은 진실을 발굴해 내는 저자의 통찰이 없었다면, 《허생전》은 그저 한 괴짜 선비의 허구적 모험담으로 치부되고 말았을 것이다. 사대부들의 눈에 비친 역상은 멸시와 폄하의 대상이었지만, 저자는 그들을 오히려 역사의 주역으로 부각시켰다.

국가들 사이에 교류가 시작된 이래로 역관들의 활약이 없었을 리 만무하지만, 기록으로 남아 있는 우리 역관의 역사는 고려에서 시작된다. 저자의 고증에 따르면, 고려는 충렬왕 2년(1276)에 통문관(通文館)을 설치하여 역관을 양성했으며, 당시에는 조인규(趙仁規)라는 몽고어 역관의 활약이 돋보였다는 것이다. 이미 고려시대부터 상당히 제도화된 수준에서 역관을 양성하기 시작했다는 점이 자못 흥미로울 뿐만 아니라, 저자는 국제정치적 세력판도의 변화에 따라 부침하는 역관의 지위와 역할을 역동적으로 보여주었다. 게다가 조선시대에는 중국어, 몽고어, 만주어, 일어, 위구르어, 유구어 등 6개국의 언어를 구사하는 전문 역관들을 양성했다는 역사적 고증을 통해 저자는 조선의 대외정책은 곧 쇄국정책이었다는 일반화된 역사 상식을 은근히 불식시키고자 한다. 직접적으로 표현하지는 않았지만, 이러한 고증을 통해 저자가 밝히고자 했던



것은 왜국은 집권 사대부들만의 전유물이었으며, 적어도 역관들은 상당한 수준의 세계화를 지향한 세계인이었다는 것이리라.

《역관》에서 구사된 글쓰기 방식의 매력은 역관들의 실상을 마치 생중계하듯이 독자들에게 생생하게 전해준다는 점이다. 특히 저자가 현전(現傳)하는 세계 최고(最古)의 중국어 학습서인 <노걸대>(老乞大)를 소개하는 대목에 이르면, 당시의 역관들이 얼마나 실용적으로 중국어를 학습했는지를 짐작하게 된다. 예컨대 낡은 지폐 한 장을 두고 주인과 손님이 실랑이를 벌이는 <노걸대>의 한 장면은 상황 설정 자체가 구체적이기도 하지만, 위폐를 가려내기 위해 손님이 건넨 돈을 그 자리에서 이리저리 살피는 마치 오늘날의 중국인들 모습을 연상시켜 독자들로 하여금 웃음을 자아내게 한다.

《역관》의 매력적인 글쓰기를 더욱 돋보이게 하는 것은 저자의 꼼꼼한 고증이다. 소설 《상도》에도 소개되어 유명해진 거상 임상옥(林尙沃)의 일화를 《통문관지》, 《연려실기술》, 《성호사설》 등에 대한 고증을 통해 역관 홍순언(洪純彦)의 일화로 바로잡은 것도 그 한 예이다. 잘 알려진 대로 일화의 전말은 명나라 홍등가에서 홍순언이 구해준 기녀가 훗날 명나라 재상 석성(石星)의 부인이 되어 홍순언을 도왔다는 것이다. 홍순언은 이 인연을 계기로 <대명회전>에 잘못 기록된 이성계의 세계(世系)를 바로 잡았고, 임진왜란에 명나라의 원군을 파견시키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조정의 대신들도 이루지 못했던 일들을 홍순언이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중국어에 능통한 역관이었기 때문이다.

근대 이전의 동아시아 국제질서는 중국이 운용한 조공체제를 통해 장기간의 안정된 평화질서를 유지했고, 그 결과 국제질서의 변동에 둔감했던 조선의 집권 사대부들

은 타율적 평화에 안주하여 위기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능력을 상실해 가고 있었다. 그러나 대부분의 양반 사대부들이 치열한 첩보전이 전개되는 냉혹한 국제정치의 현실을 외면하고 있을 때, 역관들은 국가를 위해 사재를 털어가며 정보전을 수행했다. 이 점에서 사재를 털어 청국의 기밀을 탐지했던 역관 장현(張炫)의 이야기는 자못 흥미롭다.

《역관》이 발굴한 역관들은 조선이라는 좁은 우물 안에 안주하지 않았다. 그들은 마음으로 세계를 받아들였고, 그들의 눈은 세계를 향해 열려 있었다. 양반 사대부들이 소중화(小中華)의 허위적 자존의식에 사로 잡혀 있을 때, 역관들은 세계의 변화를 몸으로 체험했고 새로운 사상을 신속히 받아들였다. 명문 역관 가문 출신으로 개화사상을 선도했던 오경석이 그랬고, 역관 가문 출신이면서 의원의 길을 걸었던 유흥기가 그랬다. 또한 역관의 후예들은 독립운동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했고, 자신들이 축적한 부를 나라의 독립을 위해 아낌없이 희사했다. 조선의 역관들은 국가가 기로에 섰을 때면 어김없이 나타나 자신을 희생했던 역사의 숨은 주역이자 진정한 세계인이었다.

조선의 역관들이 온갖 수모와 멸시를 감내하며 묵묵히 자신의 역할을 수행했다면, 동시대 중국이나 일본 역관들의 모습은 어떠했을까? 중국과 일본의 역관들도 조선의 역관들처럼 집권층의 기능적 보조기구에 불과한 주변부적 존재들이었을까? 중국과 일본의 역관들도 그들의 활동에 대한 정부의 지원을 기대할 수 없었기 때문에 자구책으로 상업 활동에 투신하여 거부로 성장했을까? 이왕에 시작된 역관에 대한 관심의 지평을 우리의 주변으로 확대하여 비교해보는 것도 우리 역관의 정체성을 확인할 수 있는 한 방법일 듯하다. ■